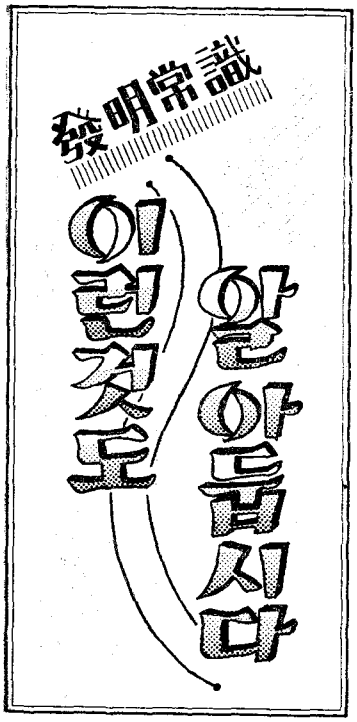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가슴에 품고 부화시키자

梁 昌 植
〈서울컴퓨터자재(주)사장〉

이 글은 서울컴퓨터자재(주) 梁昌植사장이 本會가 매월 두째주 土요일 오후 1時 特許廳 硏修室에서 개최하는 發明敎室(第42回)에서 行한 講演내용의 一部이다.

『精誠들여 만든 製品, 世界第一 商品되어 우리 所得 올려준다』는 사시를 내걸고 77年 서울컴퓨터자재(주)를 設立한 梁사장은 發明企業人으로서 지난해 本會가 釜山·光州·大邱·大田등에서 개최한 地方發明敎室에서도 講士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전직 言論人이기도 하다.

〈編輯者 註〉

아이디어를 구하라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꿈의 옷을 입혀야 한다.

아이디어는 스스로 창조를 이룩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게 과연 될까?" 하고 관망만 한다면 그 값진 아이디어는 빛을 못본 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이디어를 계란으로 비유한다면 꿈의 옷은 그 계란으로 품은 암탉과 같다. 계란은 암탉이 품지 않으면 계란 그대로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생각만으로 끝난다면, 한날 공상으로 그치게 된다. 흥분으로서 아이디어를 부화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시 그 아이디어를 가슴에 품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타날 것을 꿈꾸어야 된다. 즉, 아이디어를 형성화시켜 생각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 구체화시켜야 된다. 아이디어를 방치해 두면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계란이 곪는 것처럼 아이디어도 곪아서 버리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아이디어가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속에서 성장하여,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어져야만 된다.

일단 문제에 부딪치면 아이디어를 구하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지체말고 가슴에 품어 부화될 그 시기까지 단단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꿈만 같은, 아이디어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곧 흥분이 필요하다. 사람이 무엇을 꿈꾸든지 마음속에 익사이트먼트(Excitement), 즉 흥분되어 안절부절할 정도가 되지 못하면 아이디어의 실상화에 맥이 빠지게 된다. 적극적인 추진력은 마음의 흥분으로부터 나온다.

아이디어가 가져올 거대한 유익과 축복을 생각해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나아가서 민족과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만 마음이 흥분되어서 밥을 먹어도 그 일이 마음에 차있고, 길을 걸을 때도 그 실상이 눈에 선하고, 그야말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로지 미친 사람처럼 그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궁리하면 마음이 뜨겁게 흥분되어 안절부절하게

될 것이다. 그 뜨거운 가슴이 곧 성취동기가 되는 것이다.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큰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어떤 일에나 미친듯 흥분하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필라멘트 발명에 바친 시간과 노력은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뜨거운 흥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1만번 이상에 달하는 실험을 거듭할 때는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게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 1만번 이상의 실험에서 드디어 성공, 오늘날 인류는 전기를 켜서 어둠을 밝히게 된 것이다.

팀웍을 구성하라

혼자의 힘으로는 큰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은 자본을 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술을 보태며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라도 팀웍(Teamwork)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생기면 가슴에 품어 성숙시키고, 거기에 흥분되어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다. 자본능력이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자본을 내놓게 하고, 기술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기술을 제공하게 해야 된다. 즉 팀웍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라

목표와 기한이 설정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안된다, 어렵다'라는 말은 벗어던지고, 이루든지 죽든지 둘중에 하나 뿐이라는 각오 아래 결사적으로 밀고 나가야 성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말, 패역한 말, 무익한 말조차 입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격언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목표가 있고 기한이 있고 정열이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이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체험〉조차 하게 된다. 작은 일에는 작은 죽음이, 큰 일에는 큰 죽음이 부딪쳐 온다.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장이다.

아이디어는 시작의 아이디어가 전부는 아니다.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시련의 불이 다가왔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또다시 찾아내야 한다. 아이디어는 멈추어져서는 안된다.

아이디어의 고갈은 곧 멸망이다. 인류도 멸망한다. 가정도 망한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면 흥왕한다. 어떠한 위기도, 장벽도,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

(案) 第49回 發明敎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3月中 第49回 發明敎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8年 3月 12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硏修室 (풍림빌딩 10층)(參加費 없이 敎材無料 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